

# 1930년대 빅토르 위고 시 번역과 '투사'(鬪士)의 변모

최지현\*

|| 차례 ||

- I. 서론
- II. 빅토르 위고 시 번역과 그 의미
- III. 빅토르 위고의 변모 - '투사'에서 '시인'으로
- IV. 결론

## 【국문초록】

빅토르 위고는 낭만주의 운동의 기수로서 시, 소설, 희곡을 망라하여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긴 프랑스의 대문호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이름이 처음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근대 초엽 조선에 『레 미제라블』이 수용되면서부터다. 『레 미제라블』은 처음 소개된 이래로 조선의 다양한 독자층에게 활발하게 향유되었으며,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대 조선인 독자들의 마음을 끈 것은 문예로서 『레 미제라블』이 성취한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들은 『레 미제라블』이 담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메시지에 공감하고 호응하였다. 자연히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빅토르 위고는 『레 미제라블』같은 소설을 통해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지적한 사상가로서 크게 자리매김했으며, 그는 시인이거나 소설가로서의 면모보다는 '투사'로서의 면모를 주목받아 왔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여러 문학잡지와 산문 등에 그의 시 몇 편이 번역된 것을 계기로 하여 빅토르 위고의 위상은 서서히 바뀌어 나간다. 1935년은 위고가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을 맞은 해였다. 조선 문단에서는 위고 사후 50주년을 기리고자 간담회를 꾸렸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다. 아울러 『시원』을 비롯한 몇몇 매체에서는 특집 기사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빅토르 위고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고 그의 문학 작품들을 개관하였다.

이 과정에서 낭만주의 성향을 띤 위고의 시가 여러 편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특히 번역가 이현구 등에 의해 그의 시 작품에 대한 나름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투사가 아닌, 낭만주의 ‘시인’으로서의 위고의 시 창작 활동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근대 조선, 빅토르 위고, 시, 번역

## I. 서론

이 논문은 잡지와 신문, 단행본에 산재해 있는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의 번역시 작품들을 한데 모아 살피고, 빅토르 위고의 시가 번역되어 소개됨에 따라 정치사상가나 투사가 아니라 시인으로서 그가 해왔던 작품 활동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힘으로써 그의 위상이 변모해 가는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의 노트르담』(Notre-Dame de Paris, 1831)과 『레 미제라블』같은 소설과 수백 편에 달하는 방대한 수의 시, 희곡, 평론을 남긴 프랑스의 대문호로 오늘날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빅토르 위고가 소개된 것은 근대 초엽,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 1862)이 번안·번역되면서부터다. 1908년 최남선(崔南善)이 주간을 맡았던 월간지 『소년』(少年) 제2호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언급된 이래, 『레 미제라블』은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여러 작가들에 의해 번안·번역되었으며 그 형태 역시 다양하게 변모하였다.<sup>1)</sup> 최남선, 민

태원(閔泰瑗), 홍영후(洪永厚) 등에 의해 번안·번역된 일련의 작품들은 제각기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들을 접한 독자들의 반응은 결코 미미하지 않았다. 문단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일반 독자들은 물론이요, 문단에 몸담고 있는 문인들까지도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 매료되어서 열띤 반응을 보이곤 했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 발장이 겪는 갖은 고난과 역경은 무정(無情)하기 짝이 없는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독자들의 애끓는 공감과 동정을 자아냈다.<sup>2)</sup> 덧붙여 지난하고 각박하기 짝이 없는 삶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저버리지 않은 채 살아가려 노력하고, 또 그러한 마음가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장 발장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가져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sup>

- 
- 1)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의 수용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도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판단된다. 박진영, 「소설 번안의 다중성과 역사성 - 『레미제라블』을 위한 다섯 개의 열쇠」, 『민족문학사연구』 제33집, 2007, pp.214-255; 고지혜, 「해방 이후 아동문학 장(場)에서의 『레미제라블』 수용 양상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1집, 2012, pp.259-294; 조재룡, 「빅토르 위고와 최남선의 번역: 중역과 근대 글쓰기의 전환」, 『통번역학연구』 제16집, 2012, pp.293-321; 최지현, 「한국 근대 번안소설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1-69; 최지현, 「근대 조선에서의 빅토르 위고 수용과 번역」, 『한민족어문학』 제70집, 2015, pp.423-449; 윤경애, 「레미제라블의 일한번역 고찰」, 『일본어학연구』 제49집, 2016, pp.41-59; 윤경애, 「민태원의 『레미제라블』 번역 연구」, 『일본어학연구』 제56집, 2018, pp.75-102; 윤경애, 「레미제라블의 근대한국어 번역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1-154 등.
  - 2) “장팔찬의 괴구홀팔자는 엇지그다지심흔지 너모도과흐듯흐다 텃성이본리부터 악흐지도 안이흐였고 짜러서 착훈일을흐려흐였섯다 아니착훈일을 흐려흐것만안이다 진실로 착훈일을흐였다 그의지끝까지흐여온 것이 모다 착훈일이라고 흐것이요 설혹부정훈일이 잇다하면 이도역시 텃성이 착훈중에서발흐는것일것이다. 최초에 기한에못 견디여 울고불우지々는 아히들을 위하야 면보 를흠치려흐것이 그의실상은 무론인자 훈마음에서 난 것이다” 平康 不學生, 「哀史를讀호고」, 《매일신보》, 1918년 12월 5일자.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레 미제라블』을 토대로 하여 만든 연극 또한 흥행하였다. 1919년 일본의 쇼교쿠사이 덴키(松旭齋天華) 일행이 연극 《승정의 축덕》을 상연하였고, 같은 해 서울의 단성사(團成社)에서도 변사들이 중심이 되어 연극 《애사》를 상연하였다.<sup>4)</sup> 이듬해인 1920년 무대극연구회(舞臺劇研究會)가 연극 《희무정》(噫無情)을 상연하였고, 1923년에는 윤백남(尹白南)을 중심으로 한 민중극단(民衆劇團)이 연극 《희무정》을 상연하였다.<sup>5)</sup> 뿐만 아니라 『레 미제라블』은 라디오 드라마, 유성기 음반으로까지 만들어져 대중들에게 널리 향유되었다. 그러했던 만큼 빅토르 위고의 이름이 당대 조선 문단 내외에서 지닌 영향력은 절대 적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빅토르 위고의 유명세에 비해 그의 시 작품이 비교적 늦게 번역되어 소개되었다는 사실은 다양한 의문점을 남긴다.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빅토르 위고의 시에 대한 번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30년대에 이르러 서야 겨우 시 여섯 편이 번역되었을 따름이다. 이 시기에는 그의 다른 소설

3) “이小説의 『잔발잔』이라는 主人公을 싸고도는 ○○의분위기는 當時의佛蘭西社會를 如實히 ○寫하약거니와 그것은 現在우리가 呼吸하고있는 이社會의그것과도 몹시 彷彿한바이고 또 『잔발잔』이라는 主人公이 걸어가는 그 ○○하고 비참한 길이- 그리고萬難中에서도오히려 一種의希望을가지고 屈하지아니하고 落膽하지아니하고 굿센거름으로걸어나가는그主人公의 모습이- 또그리고 暗黑의뒤틀골목으로 쫓겨다니면서도恒常窮한자와無知한자에대한限업은同情과援助로 一貫한主人公의義俠의 行動이 얼마나우리들에게 ○○과 尊敬의뜻감을갖게하는것인가(후략)” 麗水, 『빅톨 위고 斷想數片』,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22일자.

4) 이들 작품은 미리엘 주교의 자비에 감화된 장 발장이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레 미제라블』서두 부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수진, 「〈애사〉에서 〈희무정〉으로 - 식민지기 레미제라블의 연극적 수용과 변용」, 『반교어문연구』 제51집, 반교어문학회, 2019, pp.275-276 참조.

5)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8, p944, p.953 참조.

작품들 역시 번역되지 않았다. 앞서 여러 차례 번안·번역되었던 『레 미제라블』이 새로이 번안·번역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으며, 위고의 또 다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의 노트르담』조차도 해방을 맞고 나서 5년이 더 지난 1950년에서야 처음으로 소개되었다.<sup>6)</sup> 이미 1925년에 『파리의 노트르담』을 원작으로 한 영화 『노틀담의 꼽추』(The Hunchback of Notre-Dame, 1923)가 단성사에서 상연되었음<sup>7)</sup>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다 할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레 미제라블』이라는 단 한 작품이 불러일으켰던 화제 성과는 단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미루어 보건대, 위고의 작품이 한국어로 옮겨져 수용되기 시작한 1910년 이래 근대 조선에서 번역되어 소개된 빅토르 위고의 작품은 기이할 정도로 『레 미제라블』 한 작품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그간 빅토르 위고 수용사를 살펴 온 연구자들의 논의가 『레 미제라블』의 수용사에 편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sup>8)</sup>

193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소개되기 시작한 위고의 시는 전부 6편으로, 기실 그리 많지도 않다. 이들은 모두 1935년에서 1938년 사이에 번역된 것이다. 번역된 시들이 실린 매체는 잡지와 신문, 단행본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빅토르 위고의 시에 대한 번역이 처음 시도된 1935년은 위고 사후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해 5월 3일 발행된 잡지 『시원』(詩苑)에 위고의 시 4편이 실렸다. 같은 달 22일자 《조선일보》에도 위고의 시 2편이 실렸다.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지현, 「근대 조선에서의 빅토르 위고 수용과 번역」, 『한민족어문학』 제7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p.434 참조.

7) 이호걸, 「식민지 조선의 외국영화 -1920년대 경성의 조선인 영화관에서의 외화 상영」, 『대동문화연구』 제7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pp.97-98 참조.

8) 각주 1)의 내용이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38년 최재서(崔載瑞)가 펴낸 《해외서정시집》(海外抒情詩集)에는 앞서 『시원』에 실린 번역시 4편 중 3편이 다시 실렸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빅토르 위고의 시 번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술한 6편의 번역시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우선 시편의 수가 너무도 적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위고가 평생 남긴 시 작품의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번역된 시 작품들을 통해 번역자의 번역 의식을 뚜렷하게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점 역시 빅토르 위고 시 번역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빅토르 위고의 시 작품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기까지에 이르는 맥락은 근대 초엽 그의 소설 『레 미제라블』이 막 소개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번안·번역되며 활발하게 수용되었던 맥락과는 적잖이 다를 것임에 분명하다. 때문에 한국 근대 문학의 빅토르 위고 수용을 논하는 데에 있어 이 번역시들을 등한시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문학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외국 문학의 번안과 번역이 담당했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조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번역 문학 및 번역 문학사 연구의 지평은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은 자료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빅토르 위고의 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되는 양상을 살피는 작업은 한국 근대 문학의 빅토르 위고 수용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닐 것이다. 아울러 한국 근대 문학의 프랑스 문학 수용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 II. 빅토르 위고 시 번역과 그 의미

1935년은 빅토르 위고가 죽은 지 50년째가 되는 해였다. 위고 사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울에서는 저명한 문인들이 여럿 모여 그를 추도하는 모임을 꾸렸고, 그가 세상을 떠난 5월 22일을 전후해서는 전국의 여러 잡지와 신문에 그를 기리는 기사들이 실렸다. 그의 기일인 5월 22일 서울 종로에 소재한 백합원에서는 이광수(李光洙)를 비롯해 당대 문단에서 활동하던 문인 스무여 명이 발기인이 되어 '유고—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였는데<sup>9)</sup> 당일 행사에는 김동인(金東仁), 김상용(金尙鎔), 김억(金億), 이헌구(李軒求) 등 오십여 명의 저명한 문인들이 모였다고 한다.<sup>10)</sup> 또한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에서는 5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위고의 생애를 되짚고 그의 작품 세계를 간단하게 살핀 「빅톨·유고—의 생애와 작품」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연재하였던 바 있다.<sup>11)</sup> 기사 내용의 대부

9) “오는二十二日是 佛蘭西의 文豪빅톨·유고의 死後五十週年에該當하는바 그것을 記念하기위하여李光洙氏外 文壇의 二十餘氏가 發起人이 되어 『유고—의 밤』을 開催한다는바 詳細한 것은左와같습니다 時日 五月二十二日(수)午後五時 場所 百合園 會費 五十錢” 「『유고—의 밤』개최»,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21일자.

10) “세계문학사(世界文學史)상에 찬란한 금자탑(金字塔)을 쌓어온 불오의결작 『레·미 제라블』로서 유명한 불란서문호(佛蘭西文豪) 『빅톨·유고—』 五十年제(五十年祭)를 기념하기위하여 二十二日 오후다섯시경에 부내 관철동(貫鐵洞) 백합원(百合園)에서 오십여명의 지명문사제씨가 모여 『유고—의 밤』을 김상용(金尙鎔)씨 사회하에 개최하였는데 『유고—』에대해서 리헌구(李軒求) 김억(金億) 김동인(金東仁)등 문단제씨의간단한 『테—블·스피—취』와 리헌구씨의 시朗讀(詩朗讀)이잇은후이어서 경성시원사(詩苑社)에서괴중한문예잡지시원(詩苑)三호『유고—』특집호를참석자제씨에게—히한권씩배포하고기념식을성대리에폐회하였다” 「『빅톨·유고— 死後 五十年紀念會盛大』,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23일자.

11) 이 사설은 박택(朴澤)에 의해 쓰인 것으로, 상·하 2편으로 나뉘어 이틀간 연재되었다. 5월 22일에는 「빅톨·유고—의 생애와 작품(상)」이, 23일에는 「빅톨·유고—의 생애와 작품(하)」가 실렸다.

분은 그의 생애와 행보를 요약하는 데에 할애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소설 『레 미제라블』을 중심으로 『웃는 남자』, 『바다의 노동자』, 평론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집 『거리와 숲의 노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제목만 거론한 정도이며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1935년 5월에 간행된 잡지 『시원』 제3호는 표지에다 ‘유고—특집호’라는 표제를 내걸고 있다. 표제에 걸맞게 맨 첫 장에는 위고의 초상사진과 서명이 인쇄되어 있다. ‘백톨·유고오五十週를紀念하야’라는 제목 아래에는 「백톨·유고오의詩人으로서의生涯」, 「백톨·유고오의詩精神素論」<sup>12)</sup> 등 논문 2편이 실렸다. 이 2편의 논문은 모두 외국문학연구회<sup>13)</sup>에서 활동하던 불문학도 이현구가 저술한 것이다. 이어서 ‘백톨유고의四詩篇譯’이라는 제목 아래에 「다시 또 그대에게」, 「四日밤의 追憶」, 「STELLA」, 「잠든 차느」 등 시 4편이 번역되어 실렸다. 이 4편의 시 역시 이현구가 번역한 것이다.

『시원』 제3호의 ‘백톨유고의四詩篇譯’에 실린 4편의 번역시는 빅토르 위고가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시집에다 발표한 작품이다. 「다시 또 그대에게」는 시집 『오드와 발라드』(Odes et Ballades, 1826)에 실린 「다시 또 그대에게」(Encore à toi)를, 「四日밤의 追憶」은 시집 『징별』(Les

12) 이전 발표한 최지현의 「근대 조선에서의 빅토르 위고 수용과 번역」에서 오독한 부분이 있어 짚어 두고자 한다. 당초 논문을 쓸 때 검토한 『시원』 제3호 판본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고 훼손이 심하여 「백톨·유고오의詩精神素論」을 「백톨·유고오의諸精神素論」으로 읽었으나,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찾은 다른 판본으로 살펴본바 ‘諸’가 아닌 ‘詩’임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

13) ‘해외문화파’라 불리는 외국문학연구회는 1926년 외국문학을 연구하고 소개함으로써 한국문학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띠고 결성되었으며, 결성된 이듬해인 1927년에는 기관지 『해외문학』을 발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주된 구성원은 모두 외국문학 전공자로 이현구 외에도 이하운(異河潤), 김진섭(金晉燮), 정인섭(鄭寅燮), 서항석(徐恒錫), 함대훈(咸大勳) 등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영미문학 번역은 이하운과 정인섭, 독문학 번역은 김진섭과 서항석, 불문학 번역은 이현구, 노문학 번역은 함대훈이 주로 맡았다.

Châtiments, 1853)에 실린 「4일 밤의 추억」(Souvenir de la nuit du quatre)을, 「STELLA」는 마찬가지로 『정별』에 실린 「별」(Stella)을, 「잠든자-느」는 시집 『할아버지 노릇하는 법』(L'art d'être Grand-père, 1877)에 실린 「잠자는 잔느」(Jeanne endormie)를 옮긴 것이라 판단된다. 각 시의 말미에는 이헌구가 쓴 '譯者注'가 덧붙여 있다. 시의 말미마다 한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기재된 역자 주는 작품의 내용을 부연하거나, 작품이 쓰이게 된 계기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시원』 제3호에 실렸던 이 번역시들 중 「다시 또 그대에게」·「四日 밤의 追憶」·「잠든자-느」등의 3편은 후일 『해외서정시집』 「불란서편」에 다시 실리게 된다.

한편 같은 달 22일자 《조선일보》에는 「씨 뿌리는 시절, 저녁」·「무덤이 장미에게 묻기를」등 시 2편이 실렸다. 이 2편의 시는 이헌구와 마찬가지로 외국문학연구회에 소속된 이하운(異河潤)이 번역한 것이다. 「씨 뿌리는 시절, 저녁」은 시집 『거리와 숲의 노래』(Les chansons des rues et des bois, 1865)에 실린 「씨 뿌리는 계절, 저녁」(Saison des semailles. Le soir)을, 「무덤이 장미에게 묻기를」은 시집 『마음의 목소리』(Les voix intérieures, 1837)에 실린 「무덤이 장미에게 물었다」(La tombe dit à la rose)를 각각 번역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가 하면 1938년에는 최재서(崔載瑞)가 펴낸 『해외抒情詩集』(海外抒情詩集)의 「불란서편」에 「다시 또 그대에게」·「四日 밤의 追憶」·「잠든자-느」등 3편의 시가 실렸다. 이는 앞서 이헌구가 번역한 4편의 시 중 3편을 싣되, 몇몇 부분을 다시 손본 것이다. '손을 보았다'고는 하였으나 대체로 띄어쓰기 방법이나 표기법을 약간 바꾸는 데에 그친 정도이며<sup>14)</sup> 크게 바

14) 한 예로 「잠든자-느」에서는 “내 생각에물히고 아가는꿈꿈다/그이마에 가진 淸朗 幻想이 여여저온다”(『시원』 제3호)를 “내 생각에못히고 아가는꿈꿈다/그이마에

편 부분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데, 이 지점에서 번역자 이헌구가 자신의 번역물에 대해 가졌던 남다른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해외서정시집』 「불란서편」의 서두에는 본격적으로 시를 소개하기에 앞서 위고의 삶과 그 문학 세계에 대해 소개하는 짧은 글이 실려 있으며, 각 시의 말미에 한두 줄의 역자 주가 덧붙여 있다. 이 점은 앞서 간행된 『시원』의 구성과 무척이나 유사하다는 느낌을 준다.

위고가 평생 동안 남긴 수많은 시편들을 떠올려 볼 때, 모두 추려도 6편 밖에 되지 않는 이 번역시들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6편의 작품들에서는 낭만주의 문학이 추구하였던 역동적인 생명력과 충만한 정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지만, 개별 작품 사이에서는 이렇다 할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각 시들이 실린 시집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시집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자면 『오드와 발라드』(1826)에서는 무궁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조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마음의 목소리』(1837)에서는 주위로부터 중상모략당하고 배척당하는 심경을 차분한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또한 『정별』(1853)에서는 거침없는 웅변조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도래하리라는 확신을 내비치고 있으며, 『거리와 숲의 노래』(1865)에서는 전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경쾌한 어조로 찬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할아버지 노릇하는 법』(1877)에서는 어린 손자와 손녀를 돌보며 발견한 노년의 행복을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sup>15)</sup> 이 시집들 사이에서 서정 시집이라는 것 이외의 접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번역자들은 어느 시 선집에 실린 위고의 작품을 골라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잡지에서든 신문에서든 단행본에

가진 淸朗한幻想이 綴여져온다”(『해외서정시집』)으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조 표시는 필자가 한 것이다).

15) 빅토르 위고, 『위고 시선』, 윤세홍 역, 지식올만드는지식, 2018, pp.139-143 참조.

서든 이현구와 이하윤은 자신이 참조한 시집이 무엇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최재서 역시 이에 대해서는 따로이 언급한 바가 없다.

표 1. 빅토르 위고 번역시 작품과 게재 지면, 번역자

작품	게재 지면 및 번역자		
	이현구, 『시원』제3호 (1935)	이하윤, 《조선일보》 (1935)	이현구, 『해외서정 시집』(1938)
「다시 또 그대에게」	○		○
「4일 밤의 추억」	○		○
「별」	○		
「잠자는 잔느」	○		○
「씨 뿌리는 계절, 저녁」		○	
「무덤이 장미에게 묻기를」		○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걸쳐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 수많은 독자를 확보해 나갔지만, 조선의 독자들은 그의 또 다른 활동 영역인 시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sup>16)</sup> 당시 빅토르 위고의 시뿐만 아니라 그를 위시하여 낭만주의 성향을 띠는 시들은 독자들로부터 이렇다 할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징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던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16) 심지어 1930년대에 이르러서도 ‘빅토르 위고=『레미제라블』’이라는 등식은 여전히 견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빅톨 위고 斷想數片」에서는 “『위고—』의 義俠에타는 붉은마음은『레-미제라블』한券을通하여서만도 우리들의 마음과이미 連絡되였고 또아프로도永遠히 連結되어잇슬것이다”라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레-미제라블』한券’에 대한 각별한 친근감마저 엿볼 수 있다(麗水, 「빅톨 위고 斷想數片」,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22일자).

두루 알려져 있는 바처럼 근대 초기 한국 문단은 주로 특정한 작가와 그의 작품, 혹은 특정한 문예사조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외국의 문학을 수용해 왔는데, 한국 근대문학이 외국의 문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상징주의 시가 담당했던 역할은 실로 지대하다. 1916년 김억(金億)이 『학지광』(學之光)에 폴 베를렌느(Paul Verlaine)의 시를 번역하여 실은 이래로, 1920년 초엽까지 우리나라에 번역된 프랑스 시의 절대 다수가 상징주의 경향을 띤 시였다.<sup>18)</sup> 당대 조선 문단은 상징주의를 소개하고 상징주의 시를 번역하는 데에 온통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1930년대에 들어서 이현구와 이하운이 빅토르 위고의 시를 번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람은 불문학을 전공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영문학을 전공하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교류가 있었을까. 그들이 각기 대학에서 불문학과 영문학을 전공한 외국문학연구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 외에 무언가 다른 사정은 없었던 것일까. 안타깝게도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현구와 이하운은 그 자신이 어떠한 경위로 위고의 시를 번역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밝힌 적이 없다.

그러나 이현구와 이하운의 문학적 취향이 위고의 시세계와 가까웠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번역가가 번역한 작품들을 통해 그의 문학적

17)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위고의 전집이 발간되었을 정도로 그의 소설 말고도 시, 희곡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당대 일본 문단의 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으로 간주하기란 어렵다.

18) 덧붙여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상징주의 시 작품들의 대부분을 폴 베를렌느와 샤를 보들레르, 두 작가의 작품이 차지한다는 점은 여러 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대 일본 문단의 분위기와 연관이 깊다. 일본에서는 말라르메, 베를렌느, 보들레르 등 상징주의 시인들에게 경도되어 있었던 우에다 빈(上田敏) 등의 주도 아래 프랑스 상징주의 시가 재빠르게 문단을 잠식해 나갔다. 실제로 일본에서 문학을 공부한 조선의 많은 시인들이 이러한 일본 문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취향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김미영의 견해<sup>19)</sup>는 일견 단순하지만 일리가 있다. 이현구의 경우 와세다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는데, 사춘기 무렵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고서 처음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독자를 교유(敎諭)하고 계몽하려는 경향을 지닌 톨스토이를 통해 문학의 세계에 입문하긴 하였으나, 실제로 그가 주로 번역한 작품들은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하는 톨스토이류의 작품들과는 다소 거리가 먼 프랑스 상징주의 및 낭만주의 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앙드레 지드의 소설이었다. 때문에 그가 풍부한 감성과 무궁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위고의 시에 살뜰히 공감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이하윤은 일본 호세이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귀국하여 《중외일보》의 학예부 기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필 활동을 시작하였다. 단독으로 번역 작품집을 낸 적이 없는 이현구와는 달리, 이하윤은 1933년 번역시집 『실향의 화원』을 출간하였다. 또한 그는 1939년 창작시집 『물레방아』를 출간하였을 정도로 번역과 창작을 가리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번역시집 『실향의 화원』에는 영국, 아일랜드, 미국, 프랑스, 벨기에, 인도 등 6개 국가에서 추려 모은 100여 편의 시 작품이 번역되어 있다. 이하윤은 이 시집의 서문을 통해 번역할 시를 고르는 데에 있어서 엄밀한 기준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향의 화원』에 수록된 시를 살펴보면 사랑, 기쁨 그리움, 고뇌, 슬픔 등 인간 본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낭만적 경향을 띤 작품들이 과반을 이루며, 한편으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목가적인 정취를 노래한 전원적인 경향을 띠는 작품들도 상당수

19) “그는 많은 작품들을 번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번역작들은 진정한 그의 문학적 취향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번역은 품이 많이 드는 매우 수고로운 작업으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작품을 번역 대상으로 선택했을 개연성은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김미영, 「문예비평가 이현구의 번역가와 교육자로서의 면모」, 『외국문학연구』 제7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8, pp.159-160.

눈에 띈다.<sup>20)</sup> 아울러 창작시집 『물레방아』에 실린 작품 중에는 인생의 비의(悲意)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삼은 서정적인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이헌구와 이하운이 추구했던 문학적 취향은 낭만주의 시의 경향과 서로 맞물리거나<sup>21)</sup> “이국 정경 혹은 회화성이 돋보이는가 하면 사랑의 비가, 자연 묘사 등이 함께”<sup>22)</sup> 했던 위고의 시세계와도 어느 정도 통하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헌구와 이하운이 빅토르 위고의 시를 번역하기에까지 이른 뚜렷한 계기를 해명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으로 위고의 시를 번역한 이헌구와 이하운이 동일한 번역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두 사람은 모두 외국문학연구회의 일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일본어의 자장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번역에 임하고 문학을 대하는 데에 있어 “主義와 派分을 超越”<sup>23)</sup>하고자 하는 외국문학연구회의 이념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빅토르 위고 시 번역 작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 번역 작업 자체가 위고 사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단발적(單發的)으로 이루어지고는 곧 끝나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번역자들이 번역에 임했던 어떤 ‘의식’을 뚜렷한 형태로 감지할 수는 없다.

20)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영식, 「연포 이하운의 번역시 고찰 -『失郷』의 화원(花園)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4권,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0, pp.235-237 참조.

21) “낭만과 시인들은 내심의 시 다시 말하자면 시인의 깊은 감정을 노래하거나 가장 숭고하고 가장 친근한 모습의 자연이 지니고 있는 가장 신성한 신비를 노래하는 서정시를 오로지 영감을 중시하고 상상력을 구사하여 구체적이고 또한 감동적으로 또는 회화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홍승오, 「19세기 불란서 문학사조」, 『인문논총』 제19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87, p.58.

22) 이규식, 『빅토르 위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6, p.25.

23) 「창간권두사」, 『해외문학』 창간호, 1927, p.1.

### Ⅲ. 빅토르 위고의 변모 - '투사'에서 '시인'으로

193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한 시기에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은 레프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의 『부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작의 반열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4)</sup> 근대 조선의 독자들은 그의 소설 중에서도 유독 『레 미제라블』이라는 한 작품에 열렬한 반응을 보였으나, 기실 빅토르 위고는 소설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시, 희곡, 평론을 남긴 작가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닌 정치적 신념을 여과 없이 표출한 정치가이기도 했다. 위고의 정치적 성향은 왕당파에서 공화파까지 극과 극을 오갔는데, 이러한 그의 행적은 그가 집필한 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위고는 희곡 《크롬웰》(Cromwell, 1827)의 서문을 통해 고전주의 사조에 정면으로 대항하였으며, 이후 낭만주의 사조를 이끄는 기수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낭만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난 시기로, 프랑스를 비롯한 여기저기에서 절대 왕정의 폐해가 가시화된 형태로 드러나던 때였다. 서양 각국에서는 왕정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과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대립하여 빈번하게 논쟁을 벌이곤 하였는데, 대체로 전자에 해당하는 이가 고전주의자였고 후자에 해당하는 이는 낭만주의자들이었다. 낭만주의는 낡고 병든 사회 제도를 거부하였고 잘못된 인습을 타파하여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사상과 감정의 자유를 추구하였고, 정서와 관념의 표현을 중시하는 것 역시 낭만

24) “『레·미제라블』은日本譯名『噫無情』으로 널리紹介되어 우리뿐아니라 만호朝鮮의文學靑年들에게 愛讀되었고 또朝鮮글로도 여러譯者에의하여 翻譯된만큼 우리들과는 매우親熟한作品이니 外國小說로는『톨스토이』의『復活』과함께 우리文壇에 가장印象기쁜 作品이 되리라” 麗水, 앞의 글.

주의의 특징이다. 이 시기에 집필된 위고의 작품에서는 구체제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긍정하고 사회를 변혁해 나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레 미제라블』은 낭만주의의 이상을 명징하게 구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사회를 원망하고 인간을 저주하던 장 발장이 미리엘 신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감화(感化)된 후, 다른 이를 측은히 여겨 도와주고 그들에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조건 없는 사랑을 쏟으며 스스로의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위고는 장 발장의 각성과 변모를 통해, 범죄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그리고는 이 작품에 혁명 이후 새롭게 건설될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아내고자 했다.

『레 미제라블』에 묘사된 7월 혁명 이후 프랑스 민중들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생활상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인들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레 미제라블』은 자유와 평등, 사랑과 관용, 영혼의 구원 등 낭만주의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이상을 구현한 작품이나, 흥미롭게도 식민지 조선의 독자들은 작품 속에 투영된 프랑스 민중들의 궁핍하고 피폐한 삶을 통해서 박해받고 착취당하는 자신들의 삶을 보았다.

민태원은 1918년 7월 28일부터 1919년 2월 8일까지 『레 미제라블』을 번안한 「애사」(哀史)를 《매일신보》에 연재하였다.<sup>25)</sup> 「애사」의 연재를 예고하는 글에서 《매일신보》의 필진은 빅토르 위고를 “불란서의다정다한호소설가”라고 소개하였다.<sup>26)</sup> 이 글에서 《매일신보》 측은 서양의 “세계적 대결

25) 쿠로이와 루이코(黑岩淚香)의 「희무정」(噫無情, 1902-1903)을 저본으로 삼은 것이다.

작』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으며, 작품의 번안에 임하는 민태원 역시 이 작품을 일종의 ‘문예’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매일신보》와 민태원의 ‘기획’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조선의 독자들에게 위고는 소설가보다는 정치사상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의 대표작인 『레 미제라블』 역시 순수한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정치·사회적 색채를 짙게 띤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sup>27)</sup>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당초 『레 미제라블』이 조선에 소개되었던 이유가 이 작품이 지닌 정치·사회적 목적성과 절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사」가 연재된 시기로부터 몇 년 앞선 1910년, 『소년』 제19호에는 『레 미제라블』의 서사 중에서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아베씨의 친구들’(Les Amis de l'ABC)과 민중들이 왕정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는 부분만을 추려 번역한 『ABC계(-契)』가 실렸다. 이 부분은 파리의 대학생 및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아베씨의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26) “이 「이스」라 하는 소설은 지금부터 삼십사년 전에 이세상을떠는 불란서의문호 「썩토루 마리 유고-」선칭의 저작흔바로 지나간 빅년동안에 몇빅명의 소설가가 몇천질의 소설을 지었으나 이소설 우에올너가 는 소설이 다시업다고 하는 「레 미제라블」이라 는소설을 번역흔것이라 「유고-」선칭은 불란서의다정다한흔소설가로 그십사세의소년적부터 일흠이놓혔으며 그중년에이루러서는 글잘하는공으로써 귀족의 반얼에까지올넛는듯 이소설은 오십세이상 한참무루녹은씩에지은 것이라 고급에업는 유명흔 소설이라는일흠을 두는것이 또흔용이치안이흔 줄을알것이라 이 세계덕 대걸작이 우보민티원씨의 령롱흔붓갓으로 번역되여 우리 민일신보에 련지되며 우리여러독자에게 소기됨은 본사의자랑으로 싱각하는바이오 독자 제군이여 그소설이 얼마나자미잇는가를알고자하는가 잠간이삼일만참으라” 「신소설 예고」, 《매일신보》, 1918년 7월 24일자.

27) 「애사」가 연재될 당시 《매일신보》에 투고된 독자들의 여러 반응을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당대의 독자들은 대부분 이 작품을 ‘문예’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지현, 「한국 근대 번안소설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47-48 참조.

저항 의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최남선은『ABC계』를 소개하는 글에서 “나는그冊을文藝의作品으로보난것보다무슨한가지敎訓書로읽기를只今도前과갓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성기계나마 이 작품을 번역하여 실은 목적을 엿볼 수 있다. 최남선은 애초에 『레 미제라블』을 창작 조선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못 소년들, 즉 계몽되고 교육받아야 할 대상에게 반드시 읽혀야 할 일종의 ‘교과서’라고 생각하고서 번역에 임했던 것이다.

『레 미제라블』은 비단 소설의 형태로만 수용되지 않았다. 연극,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은 물론이요 유성기 음반으로까지 만들어지며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일반 대중 속으로도 깊이 침투해 갔다. 그러나 이 작품을 둘러싸고 근대 조선인들이 보였던 그 모든 열띤 반응의 저변에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한 문학 작품이 거두었던 예술적인 성취에 대한 찬탄보다는 이 작품이 지니는 다른 의도 - 교육적인 의도 혹은 정치·사회적인 의도에 대한 공감이나 더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1910년의 「ABC계」와 1918년의 「애사」를 거치면서 빅토르 위고는 『레 미제라블』을 쓴 프랑스의 뛰어난 문장가인 동시에 위대한 사상가, 칼 대신 펜을 들고 민중을 위해 싸운 투사(鬪士)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요컨대, 실존했던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와 조선어로 옮겨진 ‘조선인의 빅토르 위고’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간극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1935년 5월에 이르러 잡지 『시원』의 편집진들은 빅토르 위고가 죽은 지 50년째가 되는 해를 기리는 기획의 일환으로 특집호를 꾸렸다. 잡지 전체를 빅토르 위고 일색으로 꾸리면서 위고의 시 작품까지 굳이 번역해 실은 의도는 무엇일까. 그 의도는 잡지의 말미에 실린 편집 후기를 통해 짧게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號는 유고오死後 五十週年을 紀念하여 유고오 特輯號로 하였다. 詩人으로서의 그의偉蹟은 李軒求氏의論文과 譯詩로 充分히紹介되었다 생각하며, 또이特輯號가 우리詩壇의 훌륭한 營養分이 될것을 自信하는바이다.<sup>28)</sup>

‘詩壇의 훌륭한 營養分’이 되어 줄 ‘詩人으로서의 그의偉蹟’을 소개하고자 하였던 집필진의 의도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이현구는 ‘백톨·유고오 五十週年紀念하여’라는 제목 아래에 「백톨·유고오의詩人으로서의生涯」, 「백톨·유고오의詩精神素論」라는 논문 2편을 덧붙여 둔다.

편집 후기에서는 빅토르 위고의 번역시를 소개하기에 앞서 실은 이 두 편의 글을 가리켜 ‘논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기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백톨·유고오의詩人으로서의生涯」는 위고의 생애와 그가 생전 발표한 시집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것이요, 「백톨·유고오의詩精神素論」은 위고의 전반적인 시세계에 대하여 비평한 것이다.

「백톨·유고오의詩人으로서의生涯」에서는 빅토르 위고가 1802년 브장송에서 태어나 1885년 파리에서 눈을 감기까지의 일대기를 정리한 글이다. 대체적으로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유년시절 “샤토브리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이래 부지런히 시 창작에 몰두했던 일, 1819년 툴루즈에서 개최된 문학경연대회에서 입상하여 문학적 재능을 드러냈던 일, 1822년 첫 시집『송가』(Ode)를 발간하여 루이 17세에게 하사금을 받았던 일 등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도 빼놓지 않고 소개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고가 발표한 시집들을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해 놓았기 때문에 위고의 문학적 전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현구가 주저 없이 빅토르 위고에게 ‘시성’(詩聖)이라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28) 「編輯後記」, 『시원』 제3호, 시원사, 1935년 5월, p.50(강조 표시는 필자가 한 것이다).

있다는 점이다.<sup>29)</sup>

또한 이헌구가 빅토르 위고를 낭만주의의 지평을 넓힌 이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액톨·유고오의詩精神素論』에서 이헌구는 낭만주의 시의 가장 큰 특징이 “色彩的 繪畫性”에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위고가 그 “神秘로운 崇嚴한 光明과 陰影”을 포착함으로써 낭만주의의 차원을 한층 더 확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위고의 시는 “無限한 音響과 움직임과 神秘로운思想”<sup>30)</sup>을 담고 있으며, “모든詩의形態 또詩가 表現할수 있는 事物과 自然의 온갖의生命을 活潑히하는 그源泉을 가졌다”<sup>31)</sup>며 극찬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헌구의 평가는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하나의 교훈서로 간주하거나 그의 작품이 담지하고 있는 일종의 목적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던 앞선 시기의 시각과는 분명히 동떨어져 있다. 결정적으로 이헌구는 “詩를 또藝術을 公利的한 手段으로 代用한다는 것은 甚히 警戒 될事實이다. 그러나 『유고오』의 詩는 결코 그런意味에서 創作된 것이 아니다”<sup>32)</sup>라고 주장하며 위고의 시에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빅토르 위고의 시세계에 대한 또 하나의 평가는 1938년 최재서가 편집한 『해외서정시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외서정시집』은 영국, 아일랜드, 미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러시아 등 7개 국가의 시인 40명이 쓴

29) “多數의詩集을내인 詩聖『액톨·유고오』는 至今부터 五十年前 卽一八八五年五月二十二日 午後一時二十七分に 두愛孫의일혼을 불으면서 거이 한世紀에가까운 八十四의高齡으로써 永眠하였다.” 『액톨·유고오의詩人으로서의生涯』, 『시원』 제3호, 시원사, 1935년 5월, p.6(강조 표시는 필자가 한 것이다).

30) 『액톨·유고오의詩精神素論』, 『시원』 제3호, 시원사, 1935년 5월, p.10.

31) 위의 글, p.11.

32) 위의 글, p.8.

서정시 127편을 모은 것이다.<sup>33)</sup> 프랑스의 시를 모은「불란서편」에는 빅토르 위고 말고도 알프레드 드 비니(Alfred Victor de Vigny), 알프레드 드 뤼세(Alfred de Musset), 샤를르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 르콩트 드 릴(Charles Leconte de Lisle), 폴 베를렌느, 아르튀르 랭보(Jean Nicolas Arthur Rimbaud), 알베르 사맹(Albert-Victor Samain)의 시가 실려 있다.<sup>34)</sup>

앞서 이헌구가 『시원』에다 실은 위고의 번역시 네 편 중 세 편이 여기에 다시 실렸는데<sup>35)</sup>, 그는 『시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해외서정시집』에도 위고의 번역시를 소개하기에 앞서 그의 삶과 문학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싣는다. 분량은 그다지 길지 않지만, 이 글의 내용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아니라 그의 시에 전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가을 낙엽』(Les Feuilles d'automne, 1831)을 비롯한 아홉 권의 시집을 위고의 대표작으로 들고 있으나, 소설『레미제라블』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 有名하다” 한 마디에 그치고 있다.

一八二七年에는 浪漫主義運動의 首領으로 詩뿐만 아니라 浪漫派演劇의 實際運動까지 參加活躍했다. (중략) 그에게는 四十餘卷의 詩集이 있다. 그 中 代表的인 것은 『秋葉』·『東方詩集』·『黃昏의 노래』·『心聲』·『光線과 陰影』·『懲罰』·『恐怖의 해』·『祖父의 노래』와 長篇敍事詩 『諸世紀의 傳

- 
- 33) 번역자로는 최재서 외에 이헌구, 정지용(鄭芝溶), 김상용(金尙鎬), 임학수(林學洙), 이원조(李源朝), 손우성(孫宇聲), 서항석(徐恒錫), 김진섭(金晉燮), 함대훈(咸大勳) 등 당대 저명한 번역가들이 참여하였다. 최재서는 『해외서정시집』의 서문에서 19세기 유럽의 교양과 낭만주의 정신을 한국에서 부활시키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가 초빙한 번역자들의 면면을 통해 당시 최재서가 품고 있었던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늠할 수 있다.
- 34)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위고, 비니, 뤼세는 낭만주의를 표방하였던 시인들이다. 보들레르, 베를렌느, 랭보, 사맹은 상징주의를 표방하였던 시인들이다. 릴은 고답파에 속한다.
- 35) 참고로 이헌구는 위고 이외에도 비니, 뤼세, 랭보의 작품들을 번역하였다.

說』等이요 그 외 小說 『레 미제라블』은 너무나 有名하다. (중략) 그의 詩에 있어서 巨創한 想像力과 多樣한 色彩와 豊富한 感性은 古今에 絶하다고도 볼 것이다.<sup>36)</sup>

이렇듯 『시원』에 실린 「백톨·유고오의 詩人으로의 生涯」와 「백톨·유고오의 詩精神素論」, 그리고 『해외서정시집』 「불란서편」의 소개문에서는 위고의 시세계를 낭만주의라는 빛으로 조명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 IV. 결론

근대 조선에 번안·번역되어 소개된 다양한 서양의 문학 작품들은 우리의 근대문학이 외부에서 이입되고 이식된 것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번안’과 ‘번역’이라는 가교를 통해 조선의 문학과 서양의 문학을 이어 주었으며, 조선의 문학이 서양의 문학을 자양분으로 삼아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번안·번역되어 소개된 작품들의 상당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세계문학의 ‘정전’(正典)으로 추앙받는 작품들과 크게 겹친다.

이 논문은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번역되어 소개된 빅토르 위고의 시 작품들이 산재해 있는 현황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그의 시가 번역되어 소개되면서 이전까지 ‘투사’로서 인식되던 그의 위상이 ‘시인’으로 변모해 가는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근대 초엽부터 동아시아에서 『레 미제라블』이 대대적인 반향을 일으키

36) 최재서 편, 『해외서정시집』, 인문사, 1938, p.179; 엄형섭, 『韓國現代詩史 資料集成』 제6권, 태학사, 1982, p.733.

면서 빅토르 위고는 그 이름을 동아시아에 널리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는 문학가로서의 빅토르 위고보다도, 정치사상가 내지는 투사로서의 빅토르 위고에 더욱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30년대 이전의 근대 조선인들은 빅토르 위고를 『레 미제라블』을 쓴 프랑스의 뛰어난 문장가인 동시에 위대한 사상가, 가난하고 꺾박받는 민중을 위해 싸운 정의로운 '투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5년 위고 사후 50주년을 기리는 기획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번역 작업을 계기로 하여, 낭만주의의 기수이자 인간의 내면에 이는 다양한 감정의 물결을 포착하여 격정적으로 표현한 서정 시인으로서의 위고와 그의 작품 활동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1935년에서 1938년 사이에 번역된 빅토르 위고의 시는 전부 6편으로, 잡지 및 신문 그리고 단행본을 통해 그 작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약동하는 생명력과 충만한 정감으로 무장한 그의 시 작품들, 잡지『시원』에 실린 2편의 논문, 그리고 『해외서정시집』의 소개문을 통해 위고는 낭만주의 시의 지평을 넓힌 '시인'으로서 평가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번역된 빅토르 위고의 각 시 작품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이 작품들이 어떠한 경위에 따라 번역되고 또 배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가늠해 보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덧붙여 빅토르 위고 시의 수용 양상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1930년대 중반 우리 문단에 위고가 내면화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타 외국 작가들의 번역시들을 다룰 때 그러했던 것처럼 빅토르 위고의 번역시가 우리 시단에 뿌리를 내린 양상을 확인해 보고, 어떤 작가에게 수용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내면화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 역시 남은 과제라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기본자료〉

『시원』 제3호, 시원사, 1935년 5월.

《매일신보》 1918년 12월 5일자.

《조선일보》 1935년 5월 22일자.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21일, 22일, 23일, 25일자.

최재서 편, 『해외서정시집』, 인문사, 1938.

〈논문 및 단행본〉

김미영, 「문예비평가 이현구의 번역가와 교육자로서의 면모」, 『외국문학연구』 제7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8, pp.147-173.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8.

빅토르 위고, 『위고 시선』, 윤세홍 역, 지식올만드는지식, 2018.

엄형섭, 『韓國現代詩史 資料集成』 제6권, 태학사, 1982.

우수진, 「〈애사〉에서 〈희무정〉으로 - 식민지기 레미제라블의 연극적 수용과 변용」, 『반교어문연구』 제51집, 반교어문학회, 2019, pp.275-300.

이규식, 『빅토르 위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6.

이호걸, 「식민지 조선의 외국영화 -1920년대 경성의 조선인 영화관에서의 외화 상영」, 『대동문화연구』 제7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pp.77-114.

조영식, 「연포 이하운의 번역시 고찰 -『실향(失郷)의 화원(花園)』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4권,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0, pp.229-247.

최지현, 「한국 근대 변안소설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_\_\_\_\_, 「근대 조선에서의 빅토르 위고 수용과 번역」, 『한민족어문학』 제7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pp.423-449.

홍승오, 「19세기 불란서 문학사조」, 『인문논총』 제19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87, pp.43-62.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Victor Hugo's Poetry in the 1930s  
and the Transfiguration of 'Activist'

Choe, Ji-hyeon

As everyone knows, Victor Hugo was at the forefront of the romantic literary movement. He is credited with extensive arts as a prominent poet, novelist, and dramatist. Defending the acceptance of 『Les Misrables』, he was first announced in the Korean Modern Era. His work was widely read by many readers.

But after accepting 『Les Misrables』, most of readers in modern Korea regarded him as a enthusiastic activist who criticized political/social problems. Not a poet or novelist.

After the mid-1930s, Hugo's status changed with the translation of some of his poems. The year 1935 was the 50th anniversary of Hugo's death. The literary world of Korea organized a special feature about Hugo, to express their admiration for him. And including 『Si-Won』 (The Garden of the Poesy), many magazines and newspapers focused on Hugo's literature, and summarized his outstanding masterpieces briefly.

In this process, some of Hugo's romantic poems were translated. Especially translator Lee, Heon-Gu praised Hugo's poem highly and recognized him as a poet who opened new horizons for romantic literary. With this work as a guide, the literary world of Korea focused on Hugo's poetic activities.

Key Word : Korean Modern Era, Victor Marie-Hugo, Poetry, Translation

최지현

소속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choejihyeon@gnu.ac.kr

이 논문은 2020년 05월 15일 투고되어  
2020년 0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6월 16일 게재 확정됨.